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0. 6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「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」(’19.6)을 차질없이
추진 중임 (매일경제, 6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는 「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」(’19.6)을 토대로
업종·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·추진중임
 - **대통령**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혁신, 신산업 투자,
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등 총 **18회의 현장행보** 수행
 - **산업부도 후속조치**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(’19.4), 소재부품장비
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(’19.8), 기활법 개정(’19.11) 등을 수립 추진
 - 올해도 “**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**(연두 업무보고)” 수립을 통해 신산업 및
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, 수소경제 도약 등 **제조업 르네상스의
후속 실천전략 구체화**
- ◇ 6.11일 매일경제 <“오바마가 직접 챙긴 미 제조업르네상스… 韓은
대통령 없었다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

1. 기사내용

- ① ‘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(’19.6.19)’ 발표 이후 대통령 주재
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,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

*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제로 세 차례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

- ② 정책의 구체성 미흡, 후속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'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('19.6.19)' 발표 이후
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해 ①4차례의 라운드테이블,
 ②6차례의 비전선포 및 협약식, ③7차례 현장 방문 등
 총 18차례의 현장행보(연두 업무보고 포함)를 추진하였음

<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('19.6.19) 이후 제조업 혁신 관련 대통령 행보 >

구분	관련 행보 (주요 메시지)	일시
① 경제위기 극복 (라운드 테이블)	①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→ 日수출규제 대응 민관협력 모색	'19.7.10
	②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계 간담회 →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	'20.2.13
	③ 주요 경제주체 초청 라운드테이블 →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·협력 당부	'20.3.18
	④ 위기극복 주요 산업계 간담회 → 산업경제 위기극복, 한국판뉴딜 추진	'20.5.21
②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혁신 (비전선포 및 협약식)	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→ 전남 5대 주력산업 육성	'19.7.12
	②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→ 이차전지 산업 육성 노사 상생협력	'19.7.25
	③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→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	'19.8.20
	④ 디스플레이 신규투자·상생협력 협약식 → 디스플레이 제조강국 도약	'19.10.10
	⑤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→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도전	'19.10.15
	⑥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→ 전기차 분야 노사 상생형일자리 창출	'20.2.6
③ 소부장 경쟁력강화 (현장방문)	① 로봇 부품기업 →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	'19.8.7
	② 친환경 자동차부품 공장 기공식 → 상생협력 통한 해외 부품공장 국내복귀	'19.8.28
	③ 소부장 현장국무회의 → 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제조강국 재도약	'19.9.10
	④ 소재부품지원센터 방문 격려 → 소부장 기술강화 지원 당부	'19.9.10
	⑤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 →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안정성 확보	'19.11.22
	⑥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(평택항) → 2030년 세계 수출강국 도약	'20.1.3
	⑦ 구미산단 현장방문 → 소부장 자립화, 연대협력을 통한 위기극복	'20.4.1
④ 종합전략 (업무보고)	○ 경제부처 업무보고 → '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' 보고 기업대표 초청건의사항 청취·논의	'20.2.17

* 이와 별도로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직전에도 2차례의 신산업 비전선포 현장행보 :
 ①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('19.4), ②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('19.5)

- 그간의 대통령 행보는 「제조업 르네상스 전략」의 주요 주제인 ①산업구조 혁신, ②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, ③산업생태계 혁신 및 ④투자활성화 등을 점검하면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
- 아울러,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경제인과의 수차례 소통과 함께 비상경제 대책회의*를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표

* 총 6차례 개최 → 실물피해 대책 32조원, 금융안정 175조원 등 총 250조원 지원대책 마련

- ② 산업부도 「제조업 르네상스 전략」의 준비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('19.8), 미래차 전략('19.10), 기활법 개정('19.11)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·추진

- ① (신산업) 시스템반도체('19.4), 바이오('19.5), 미래차('19.10) 등 3대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가시적 성과* 창출

* 역대 최대 시스템반도체 매출('20.1분기),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달성('19) 등

- ② (소부장)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및 특별회계* 설치, 수요-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창출 등 소부장 자립화 기틀 마련

* 과거 '01~'19년까지 19년간 5.4조원 투입 → '20년 한해만 1조원 투입

- ③ (주력산업) 기업활력법 개정('19.11)을 통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밀착관리

- ③ 올해도 「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('20.2, 연두 업무보고)」 계획을 발표해 「제조업 르네상스 전략」의 분야별 추진전략 구체화

- ① (소부장) 3대 품목 등 연내 공급안정 확보,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,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등 → 확실한 자립 실현

- ② (신산업) 차세대반도체 협력생태계 구축 및 시스템반도체 투자, 미래차 실증, 바이오헬스 수출동력화 등 → 포스트 반도체 육성

③ (수소경제) 수소차 신규 1만대 보급, 수소차 충전소 구축 등 수소 생산·활용·수출 확대 기반 마련 → 글로벌 1등 수소 국가 도약

④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*하고 있으며,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「제조업 르네상스 전략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

* (수출) 코로나19 수출지원("20.2), 수출활력제고("20.4),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("20.6)
(주력산업) 자동차·조선·정유 등 주력산업 지원 대책("20.4), 피해업종 추가지원 대책("20.5) 등

※ 문의: 김성열 산업정책과장(044-203-4210) / 장미연 사무관 (044-203-4212)